



90분 드라마 축구에서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추가시간 득점 하나로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7시즌 K리그 클래식을 뜨겁게 달구는 상주의 뒷심에 주목해볼만하다. 9월 16일 광주전에서 후반 추가시간 골을 넣고 포효하는 상주 김호남(가운데).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시계가 멈추면, 불사조가 뜬다

〈정규시간 90분〉

〈상주 상무〉

사커 토막

각본 없는 드라마, 극장골의 모든 것

16일 광주전 후반 45분 이후 폭풍같은 2골 상주, 올 시즌 추가시간에 7골 K리그 최다 FC서울 데얀 3골·박주영도 2번의 끝장골

스포츠는 흔히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한다. 뻔한 결말이 예상되는 무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 도중 반전과 반전을 거듭하면서 마지막 결말까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축구도 마찬가지다. 정규시간 90분은 물론이고 경기 도중 낭비한 시간을 보충해주는 추가시간까지 긴장과 이변이 계속된다.

피치에서 절대로 눈을 뗄 수 없는 '집중의 종막'은 매 순간이 흥미진진하지만 그 가운데 백미는 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터지는 골이다. '버저비터 득점'으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고, 통한의 무승부도 나온다.

막바지로 치닫는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도 후반 추가시간 득점이 많이 터져 나온다. 시즌 개막전부터 시작해 34골이다. 빈도가 아주 잦은 것은 아니다. 물론 5분 남짓의 후반 추가시간에 화끈한 화려전을 기대할 수도 없다. 막판 1골 정도를 기대하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다.

그런데 9월 16일 펼쳐진 정규리그 29라운드에는 이전과는 전혀 달랐다.

●강렬한 불사조 정신

상주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진 상주상무-광주F

2017시즌 K리그 클래식 후반 추가시간 득점현황

팀(순위)	득점	득점자
전북	2골	김신욱(2골)
제주	3골	마르셀로·권순형·안현범(이상 1골)
울산	2골	오르샤·김승준(이상 1골)
수원	3골	염기훈·고승범·유주안(이상 1골)
서울	6골	데얀(3골)·박주영(2골)·이상호(1골)
강원	2골	디에고·김승용(이상 1골)
포항	3골	롤리나·김광식·양동현(이상 1골)
전남	2골	페체신·허용준(이상 1골)
대구	1골	추니오(1골)
인천	2골	김대경·박용지(이상 1골)
상주	7골	주민규(3골)·김호남(2골)·김병오·임채민(이상 1골)
광주	1골	조주영(1골)

※후반 45분 직후부터 추가시간 인정 / 29라운드 현재

O의 골짜기들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승점 6점짜리 매치업이어서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승점 25의 상주가 11위에 랭크된 가운데 12위 광주는 승점 20으로 추격했다.

경기는 상주의 3-2 승리로 끝났다. 광주가 이겼다면 2점차로 따라붙을 수 있었으나 격차는 8점으로 더 벌어졌다. 상주가 맞본 올 시즌 홈 2번째 승리의 감동도 컸지만 후반 45분부터 터진 추가시간의 득점공방은 강렬했다.

스코어 1-1에서 후반 46분 상주 주민규가 장군을 부르자 2분 뒤 광주 조주영이 평균으로 맞섰다. 역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불과 1분 만에 상주 김호남이 결승골을 뽑았다.

상주의 후반 추가시간 퍼포먼스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2골을 넣은 경기도 있다. 8월 20일 대구FC 원정이었다. 0-2로 패색이 짙었다. 그래도

불굴의 불사조 정신을 잃지 않았다. 후반 45분 시계가 멈추고 동시에 주민규가 추격에 시동을 걸더니 후반 51분 임채민이 끝내 동점을 만들었다.

이렇듯 상주는 후반 추가시간에 유난히 강했다. 후반 45분 이후 득점이 무려 7골이다. 시즌 득점 30골 가운데 '버저비터 득점' 비중이 가장 높다. 29라운드 현재 후반 추가시간에 2골 이상 터진 경기가 2차례였는데 전부 상주가 기록했다. 주민규가 3골, 김호남이 2골로 이름값을 하고 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

FC서울의 후반 추가시간 화력도 만만치 않다. 6골이다. 몬테네그로 골키퍼 데얀이 3골로 주민규와 어깨를 나란히 했고, 박주영이 2골을 뽑았다.

하지만 나머지는 고만고만하다. 제주 유나이티드~수원삼성~포항 스틸러스가 나란히 3골을 기록 중이다. 상주, 서울과는 달리 득점범위도 골고루 분포됐다. 3명이 1골씩 책임지면서 다양한 공격 루트를 자랑했다.

통산 5번째 K리그 정상을 넘보는 전북현대와 2위 싸움을 벌이는 울산현대, 상위 스플릿(1~6위) 진입을 1차 목표로 삼은 강원FC, 뜨거운 생존다툼을 벌일 전남 드래곤즈와 인천 유나이티드는 2골을 넣었다.

전북만 스틸라이커 김신욱이 2골을 전부 책임졌을 뿐 나머지 팀들은 득점자가 전부 달랐다. 대구와 광주가 가장 저조한 1골씩 넣은 가운데 후반 추가시간 득점이 나온 것은 31경기다. 이 가운데 무승부로 끝난 것은 5회, 승패가 갈린 경기는 13회였다. 나머지 13경기는 추가시간 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신태용+히딩크 ‘솔로몬의 해법’ 찾아라



최현길 전문기자의 스포츠 에세이

1993 김호 - 2017 신태용의 데자뷔

‘도하의 기적’에도 여론 못매 맞은 김호 기술자문 비쇼베츠와 의미있는 동행

러 월드컵 본선 진출 불구 경기력 속제 ‘히딩크 논란’ 신태용호 상황과 닮은꼴

1993년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1994미국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은 최종전에서 본선행의 주인공이 갈린 각본 없는 드라마였다.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은 북한에 3-0으로 이겼지만 자력 진출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동시에 열린 일본-이라크전에서 이라크가 추가시간에 동점골을 넣어주는 바람에 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행운의 티켓을 따냈다. 그 유명한 ‘도하의 기적’이었다.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3회 연속 본선 진출이었다.

하지만 귀국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대표팀 김호 감독을 향한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김 감독은 1992년 7월 계약기간 2년에 사인한 최초의 전임 감독이다. 여론이 들끓은 이유는 최종예선에서 일본에 졌기 때문이다.

다른 팀도 아니고 속직 일본에 무기력한 경기를 하며 0-1로 패한 건 아무리 본선 티켓을 따어도 용서할 수 없다는 분위기였다. 아울러 이 전력으로 본선에 가봐야 창피만 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결국 ‘감독 경질이나, 유임이나’의 막다른 골목까지 갔다. 이를 놓고 기술위원회가 열렸다. 그런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기술위원들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진 가운데 최종예선 출전의 책임을 지고 기술위원 전원이 총사퇴한 것이다. 감독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신 기술위원들이 모두 물러나는 해프닝이 벌어지면서 결국 고비를 넘긴 김 감독은 유임됐다.

대신 축구협회가 꺼낸 카드가 외국인 지도자의 기술자문 영입이었다. 선진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명분으로 이끈. 88서울올림픽에서 러시아를 우승으로 이끈 아나톨리 비쇼베츠 감독이 기술자문으로 왔다.

하지만 대표팀의 작전권은 김 감독이 가졌다. 몇 개월간 불편한 동거 속에서 비쇼베츠는 미국 월드컵까지 동행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24년 전 상황은 결코 낯설지가 않다. 2017년 한국대표팀과 여러모로 겹친다. 시점만 바뀌었을 뿐 그 때나 지금이나 똑 같은 처지다.

2018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2경기를 남겨두고 감독을 교체한 한국은 최종전으로 치러진 우



한국축구를 둘러싼 현재의 상황은 1993년을 새삼 기억나게 한다. 월드컵을 목전에 두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 1993년 김호 감독이 풀어나간 방법은 2017년 신태용 감독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까. 스포츠동아DB

즈베키스탄과의 원정경기에서 득점 없이 비겼다. 자력 진출이 무산된 가운데 동시에 열린 이란-시리아전에서 이란의 도움으로 행운의 티켓을 따냈다. 말 많고 탈 많은 최종예선이었지만 어쨌든 9회 연속 본선진출을 이뤘다. 현장에서 행가를 하는 등 축제 분위기였다.

그런데 여론은 냉랭했다. 귀국 환영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문제는 대표팀의 경기력이었다. 신태용 감독이 맡은 2경기에서 단 한골도 넣지 못하자 팬들이 등을 돌린 것이다. 분위기에 맞지 않은 행가레도 도마에 올랐다. 또 본선에 가셔도 믿음을 주기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이런 우월한 상황에서 ‘히딩크 논란’이 불거졌다. 대리인을 통해 ‘히딩크가 대표팀 감독을 맡을 용의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꼴이 돼버렸다. 축구협회의 미숙한 대처는 불신감을 키웠고, 결국은 감독 교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이르렀다.

히딩크가 기자회견에서 “조언을 통해 한국축구를 돕겠다”고 설명했지만 히딩크 영입을 원하는 팬들의 미련은 여전하다. 축구협회는 신 감독의 신임을 확인하면서 “조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히딩크와 한국축구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어떤 식으로든 엮일 수밖에 없다. 다소 불편하겠지만 히딩크의 풍부한 경험을 한국 대표팀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게 됐다.

다시 1990년대로 돌아가 보자. 김호 감독의 한국대표팀은 미국월드컵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했다. 2부1패로 조별예선에서 탈락했지만, 경기 내용은 좋았다. 스페인전에서는 0-2로 뒤진 상황에서 끈질기게 따라붙어 동점을 만들었고, 세계 최강 독일전에서도 0-3으로 뒤진 후반에 포기하지 않고 2골을 얻어내 큰 박수를 받았다. 4득점 5실점. 아시아 최강의 모습과 함께 한국축구의 가능성을 확인한 대회였다.

이제 신태용 감독 차례다. 러시아월드컵에서 미국월드컵처럼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choing2@donga.com

루니, 음주운전 사과…불륜설엔 노코멘트

통신원 리포트

최근 20대 여성의 차를 대신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걸린 웨인 루니(에버턴)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과했다. 9월 1일 오전 2시(현지시간) A매치 기간에 친구들과 파티를 마친 뒤 술에 취한 20대 여성의 차를 몰고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음주운전에 걸린 루니는 18일 최종판결을 위해 법원에 출두했다. 어두운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루니는 사회봉사 100시간, 면허정지 2년, 벌금 170파운드(한화 약 26만원)가 확정됐다.

판결 직후 루니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사과했다. “용서받지 못할 음주운전 실수에 공개적으로 사과한다. 무조건 나의 잘못이다. 나의 가족, 에버턴 감독과 구단주, 구단 모든 관계자에게 사과한다. 팬들과 선수생활 동안 꾸준히 응원한 사람들에게도 사과하고 싶다. 이번 판결을 모두 받아들이며 사회봉사를 통해 반성하겠다”고 했다.

음주운전은 인정했지만 당시 같이 있던 여성과의 불륜소문이나 현재 자신의 넷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콜린 루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콜린은 사건 당시 세 명의 아이들과 여행 중이었지만 바로 영국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루니가 소속 팀 에버턴에서도 2주치 주급을 벌금으로 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에버턴 로날드 쿠만 감독은 “루니의 행동에 매



웨인 루니

프리미어리그에서 강등권으로 하락한 것이 최근 영국에서는 큰 이슈다. 1승1무3패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유럽축구연맹(UЕFA) 유로파리그 세리에A(이탈리아) 아탈란타와의 원정에서도 0-3으로 졌다. 경기 뒤 쿠만 감독은 팬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많은 선수를 영입했지만 맨유로 떠난 공격수 로멜루 루카쿠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했다. 자책을 받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조세 무리뉴는 17일 BPL 5라운드에서 에버턴을 상대하기 전 “그만큼 돈을 썼다면 에버턴은 리그 4위를 목표해야 할 것”이라고 해 쿠만 감독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쿠만 감독은 “4위 목표가 비현실적이다. 팬과 언론에 말하고 싶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2016~2017시즌 정도의 성적(7위)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6위 강원-7위 포항, ‘반전의 키’ 누가 잡나

K리그 클래식 30R 관전포인트

광주, 김학범 체제후 4전 5기 첫 승 도전
3위 진입 노리는 수원, 제주와 정면 승부



잠잠하던 하위권 판도가 요동치게 될까. 막바지로 치닫는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7’ 30라운드가 9월 20일 전국 6개 구장에서 일제히 열린다. 선두 전북 현대의 독주 속에서 2위 싸움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중하위권 경쟁 역시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스플릿 경계에서 다투는 강원-포항

스틸아트에서 만나는 강원과 포항은 각각 6위와 7위로 상·하위 스플릿의 경계선상에 놓여있

다. 강원으로선 상위 스플릿 안정권으로 접어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포항은 반대로 상위 스플릿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찬스다.

다만 두 팀 모두 A매치 휴식이 이후 승리가 없는 상황이라 현재 분위기는 썩 좋지 않다. 강원은 28라운드에서 전북에 패한 뒤 29라운드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비겼고, 포항 역시 하위권 팀 대구FC에 일격을 당하고 나서 전북에 0-4 충격 패를 당했다. 분위기를 잘 추스르는 팀에게 반전 기회는 있다.

●정체 구간 벗어나려는 서울-광주

‘디펜딩 챔피언’FC서울은 최근 행보가 답답하기만 하다. 승점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에서 계속해 발을 헛디뎈 5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간은 아슬아슬하게 흘렀다. 무엇보다 29라운드 인천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0-1로 패한 기억이 뼈아프다. 광주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김학범 체제’돌입 이후 4경기에서 아직 승전보가 없다. 잇달아 치른 하위권 일전에서 인천과 비겼고, 상주 상무에 졌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선 홈에서 치르는 서울전 승리가 절실하다. 2017시즌 1승1무로 상대전적에서 앞서고 있다는 점이 광주로선 믿을 구석이다.

●2위 항방 놓고 만나는 제주-수원

하위권 일전만큼 뜨거운 관심이 쏠리는 곳은 박버드다. 2위 자리를 놓고 다투는 제주 유나이티드와 수원이 파할 수 없는 대결을 펼친다. 2위 제주는 현재 승점 54로 선두 전북에 6점 뒤져있다. 전북은 같은 날 11위 상주를 홈으로 불러들여 승점 쌓기를 노리고 있다. 제주도 추격의 동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4위 수원 역시 다급하긴 마찬가지다. K리그 클래식 3위 팀까지 주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위해서라도 3위 진입이 절실하다.

고봉준 기자 shutoul@donga.com

키오프 41초 만에 첫 골을 뽑은 데 이어 2차례 도움을 기록, K리그 최초로 70(골)-70(도움)을 달성했다. 통산 460경기에서 197골·71도움을 올린 이동국은 통산 200골에 3골만을 남겨뒀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